

경희(景晦) 김영근(金永根)의 한시연구

— 강진에서 간도까지 <원유일록(遠遊日錄)>을 중심으로 —

문 희 순*

차 례

1. 서론
2. 김영근의 생애
3. <원유일록>의 여정과 수록 한시의 특징
 - 3.1. <원유일록>의 여정
 - 3.2. <원유일록> 수록 한시의 특징
4. <원유일록>의 문학적 특징과 의의
5. 맺으며

| 국문초록 |

경희 김영근(1865~1934)은 근대 격동기를 살다간 호남의 한 우국지사(憂國之士)이며, 문학유자(文學儒者)이다. 경희는 조선시대 사람으로 태어나 대한제국과 일제침략하의 한국인으로 살아가며, 조선성리학과 학문 정신을 올곧게 실천하였다. 김영근은 소년시절부터 '동파(蘇東坡)가 다시 태어났다'는 격찬을 한 몸에 받았던 인물이다. 근대기 신학문(新學問)에 자리를 내주며 명멸(明滅)되어가던 한문학을 올곧게 지켜낸 마지막 세대로 평가된다.

김영근은 “살아서는 요동의 객(遼東客)이 되고, 죽어서는 요동의 귀신(遼東鬼)이 되는 것”이라 말할 정도로 우리의 역사가 서려있는 간도(間島) 요동벌판을 가슴에 품었다. <원유일록>은 그러한 염원을 실행에 옮기며, 간도행차 긴 여정의 나날을 기록한 일록(日錄)형식의 글이다. 간도 원유(遠遊)는 경희 나이 42~43세 때에 이루어졌다. 경희는 일제강점의 소용돌이와 서세동점(西勢東漸)의 충격 속에서, 새로운 삶의 대안을 모색하고자 원유를 감행하였다. <원유일록>은 일록과 한시로, 강진에서 서간도로 북진하며 일행 다섯 사람의 고행과, 급변하고 있는 일제치하 한국의 근대 모습이 짙진(眞眞)하게 서술된 작품이다.

본고는 <원유일록> 소재 234수의 한시작품을 중심으로 살펴본 것이다. <원유일록> 소재

* 충남대학교

한시를 크게 ①힘난한 원유 여정과 고난, ②일제의 만행과 울분 토로, ③위척존양(衛正斥邪, 尊華攘夷)의 의리, ④그리움과 애련의 가족애, ⑤궁핍과 부유의 신세한탄, ⑥변속(變俗)의 세대 탄식으로 분류하여 살펴보았다. 그리고 〈원유일록〉의 문학사적 의의를, 첫째, 일제 강점기 지조의 한문학. 둘째, 호남문학 전통의 계승. 셋째, 남과 북 언어와 가요에 대한 인식으로 평가하였다. 김영근의 〈원유일록〉에 표현된 한시 작품의 주된 정서는 통한(痛恨)·비에(悲哀)·분노(憤怒)·저항(抵抗)·좌절(挫折)·고독(孤獨) 등의 정조로 나타났다.

핵심어 : 김영근, 원유일록, 강진, 간도, 문학유자, 위척존양.

1. 서 론

경희 김영근(1865.3.3.~1934.12.7)은 근대 격동기를 살다간 호남의 한 우국 지사이며, 문학유자(文學儒者)¹⁾이다. 경희의 자는 내회(乃晦), 경희(景晦)는 호이다. 경희 이외에 죽산(竹山)·천태(天台)·옥명산인(玉屏山人) 등의 호도 썼는데 모두 경희가 살던 곳의 지명이다. 경희라는 호는 스승 오남(吾南) 김한섭(金漢燮, 1838~1894)이 지어준 것이다. 주희(朱熹, 1130~1200. 자 元晦, 호 晦庵·晦翁)의 호 ‘회(晦)’ 자를 따서 ‘주자의 그림자를 따라 간다’는 뜻이다.

경희는 어려서부터 총명함과 시재가 남달라 주위 사람들을 크게 감동시켰다고 한다. 〈보검편(寶劍篇)〉은 경희가 어렸을 적에 지은 한시 200여 수를 수록한 시집이다. 경희와 중유하던 사우들은 〈보검편〉의 시를 보고 감탄하며 ‘동파(東坡)가 다시 태어났다’고 격찬하였다고 한다. 일찍이 해남 대둔사에 놀러 가서 북을 읊은 시, “피면원여월(皮面圓如月), 철정열사성(鐵釘列似星), 곧 ‘가족의 면은 달처럼 둥글고, 쇠못은 별처럼 벌여있다.’가 인구에 회자되었다고

1) ‘문학유자(文學儒者)’라는 말은 『경희집』 〈원유일록〉 7월 7일의 기록에 나온다. 경희 일행 5인이 함경남도 영흥진 여관에서 청나라 상인과 영흥포졸 들에 의하여 도둑떼로 오인을 받아 곤욕을 치르자, 의관 최형환(崔亨煥)이 그들을 꾸짖으며 “너희들은 눈이 있으면서 문학하는 선비도 알아보지 못하느냐?(汝等有眼, 不識文學儒者耶?)”라고 호통하여 경희 일행이 봉변을 모면한 기록이 있다.

한다. 특히 “황계옥상수성립(黃鷄屋上收聲立), 백로강변권영비(白鷺江邊捲影飛)”, “누런 닭은 지붕 위에서 소리를 거두고 서 있고, 백로는 강가에서 그림자를 감아 날아간다.”라고 읊은 시는 강진현감으로부터 상을 받은 것으로²⁾, 강진 일대 촌로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시화(詩話)가 되었다.

어렸을 때부터 뛰어난 시재로 주변 사람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았던 경희는 일제의 침략과 수탈에 점점 먹혀들어가는 망국의 현실을 한탄하며 1,158제 1,527수의 한시 작품을 남겼다.³⁾ 그러나 수백 권에 달하는 경희의 저술은 6.25 동란의 와중에 모두 유실되어 경희 김영근이라는 이름이 학계에 전혀 알려지지 않게 되었다. 후손들이 경희의 저술이 전화(戰禍)로 훼손될까 염려하여 향아리 속에 넣어 땅에 묻어둔 것이 모두 부패해 녹아 버렸던 것이다. 1980년대에 이르러 후손들이 경희의 생존 제자들을 수소문하였고, 제자들이 필사해 두었던 글을 수집하여 『경희집(景晦集)』 발간이 도모되었다.⁴⁾ 이 기간 중에 최신희 교수의 논문⁵⁾이 최초로 학계에 보고되었다. 최신희 교수의 논문이후 조동일 교수는 『한국문학통사4』에서 ‘적극적 항쟁의 문학⁶⁾ 항목에서 짧게 언급하였다. 이어 이백순·최한선 역의 국역본⁷⁾과 『경희집(景晦集)』이 출판되었고, 박민영과 황민선의 논문이 보고되었다.⁸⁾ 국역본 출판이후에 추가로 발견된 『경희선생시집절』과 『강극당첩(剛克堂帖)』 등을 참조하여 『경희선생시전집』이

2) <경희선생유시전문록(景晦先生幼時傳聞錄)>, 『국역 경희집』, 826쪽.

3) 『경희선생시전집』에는 현전 총 1,158제 1,527수의 시를 수록정리하였다. 그러나 이 책도 완성본은 아니고, 앞으로 새롭게 발견될 여지는 남아있다.

4) 이석천, <경희당 행장>, 『국역 경희집』, 강진군, 2010, 831쪽 참조.

5) 최신희, 「경희의 시세계 - 척사위정의 측면에서」, 『성심어문논집』 7, 성심어문학회, 1983, 1~23쪽.

6) 조동일, 『한국문학통사4』, 지식산업사, 2005, 167~169쪽.

7) 『국역 경희집』(이백순·최한선 역, 강진군, 2010). 본고의 번역은 이 국역집에 크게 의존하였다.

8) 한국학문헌연구소 편, 『경희집』, 아세아문화사, 2013; 박민영, 「호남유생 景晦 金永根의 생애와 복간도 향일 망명」, 『한국독립운동사연구』49,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14; 황민선, 「景晦 金永根 한시의 전원인식」, 『한민족어문학』 72, 한민족어문학회, 2016.

정리되었다.

본고는 『경회집』에 실려 있는 <원유일록(遠遊日錄)>을 중심으로 경회의 삶과 문학세계의 한 단면을 살펴보고자한다. <원유일록>은 병오년(1906년, 경회 42세) 5월 19일에 시작하여 같은 해 8월 21일까지의 기록이고, 한시작품 총 234수가 수록되어 있다. 경회는 노정 중에 일어난 사건과 느낌을 한시 작품으로 썼는데, 다작한 날은 10수 까지도 지었다. <원유일록>은 일기 형식의 기록물이나, ‘한시로 쓴 문학여정’이라 말할 수 있다. 원유의 최종 목적지는 간도(懇島) 요양(遼陽)이다.⁹⁾ 경회는 간도 행을 감행한 이유에 대하여, 시국의 상황이 말할 수 없어 몸 둘 데가 없으므로, 부득이 북간도에 가서 몸을 은신할 곳을 찾고자 했다고 말하였다.¹⁰⁾ 그러나, 현전 <원유일록>은 양강도 갑산부(甲山府) 호린(呼麟) 어은동(漁隱洞)에 그쳐 있는데, 호린은 압록강 상류 삼수(三水)의 초입 마을이다. 원유에 함께한 사람은 경회를 포함 홍의(弘毅) 위봉식(魏琇植)·익경(益卿, 호 後圃) 조동겸(趙東謙)·인부(仁夫) 홍병원(洪秉元)·아들 김효주(金孝柱)¹¹⁾ 다섯 사람이다.

2. 김영근의 생애

경회의 부는 심어당(心漁堂) 김도순(金道淳, 1820~1886), 모는 창녕조씨

-
- 9) 경회 일행의 원유의 최종 목적지가 간도 요양임을 알 수 있게 하는 기록으로는, 아래 주10)의 <가정문답> 이외에 다음과 같은 기록에서도 확인된다. 『경회집』, <원유일록>, 07월 26일, “요양의 풍설이 사람을 바쁘게 재촉한다(遼陽風雪催人忙); 08월 8일, “요양으로 가는 객이 선문에 들어간다(遼陽行客入仙門); 08월 16일, “요하 만 리가 앞길로 당하였다(遼河萬里當前路).”
- 10) 이 말은 정미년(1907)에 간도에서 고향 강진으로의 귀향 중에, 춘천에 머물러 있던 의암(毅菴) 류인석(柳麟錫, 1842~1915)을 방문하고, 의암과 문답을 하는 과정 중에 한 말이다. 『경회집』, <가정문답(柯亭問答)>, “但時象罔極, 無地可以措身, 故昨年夏不得已作北懇島之行, 尋遯居之地.”
- 11) 김효주는 경회의 큰아들, 위봉식은 오남선생에게 동문수학한 경회의 친구(1863년생), 조동겸과 홍병원은 경회의 제자로 추정된다.

(1831~1913)이다. 1865년 3월 3일 강진에서 태어나, 1934년 12월 7일 칠량면 현평리에서 70세의 나이로 졸하였다. 경희는 5세에 아버지 김도순으로부터 천자를 배우기 시작하여, 6세에 요결, 11세에 경사를 통하고, 13세 부터는 제술을 공부하기 시작하였다. 열네 살 때에는 오남(吾南) 김한섭(金漢燾), 열여덟 살 때에는 중암(重菴) 김평묵(金平默)의 문하에서 수학하였다.¹²⁾ 오남을 통하여 노사(蘆沙) 기정진(奇正鎭)을, 중암을 통해서는 화서 학맥 도통을 이어받아 평생을 위정척사(衛正斥邪)와 항일호국(抗日護國)의 정신사 속에서 살았다.¹³⁾

경희는 조선의 멸망과 대한제국기 일제치하의 불우한 시대를 만나 그의 나이 42세와 51세 때인 1906년(병오)과 1915년(을묘)에 두 차례 간도행을 감행하였다. 간도행 1차 때에는 둔거지지(遯居之地)를 찾기 위함이었고, 2차에는 부인 탐진씨를 포함한 전 가족의 망명이주였다. 그러나 2차 간도망명 때에는 정착생활에 크게 어려움을 겪고 귀국하던 중 두만강 위에서 도적떼를 만나 몸을 상한 뒤 천신만고 끝에 강진으로 돌아왔다.

귀국 후 신흥리의 신흥서관(新興書館)에서 훈장으로 후학들을 양성하기도 하였으나, 신학문의 주장과 구학문의 주장이 달라, 설경(舌耕)의 신세는 가난 속에서 전전하였다.¹⁴⁾ 서세동점(西勢東漸)의 급변하는 시대 분위기와 학문 가치의 전도 속에서 훈장 일로 가족을 책임지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었다. 때문에 쌀 한 되가 아쉬운 곤궁한 삶을 살았다. 있는 집마저 팔아 이사 다니기를 수차례, 빈집에 들어가 살기도 하였다.

경희는 슬하에 많은 자녀를 두었으나 큰아들 효주는 생사불명이고, 네 명의 딸은 요사, 부인 두 명은 앞서 죽었다. 경희는 이렇듯 비운의 시대와 애련의 가족사 속에서도 명멸해가는 유교의 맥과 조선선비의 지조를 지키며, 저술로써 우국지사의 삶을 표현해내었다. 다음 [도표 1]은 김영근의 생애를 연대별로 재구한 것이다.

12) 『경희집』, 〈惻怛歌〉, “十四執策寒泉門, 十八摳衣智海館.” (『경희집』(아세아문화사), 56쪽.

13) 이석천, 〈경희당 행장〉, 『국역 경희집』, 828~830쪽 참조.

14) 『경희집』, 〈설경(舌耕)〉, “新學主張舊學殊, 舌耕身世轉艱難.”

도표 1. 김영근의 생애¹⁵⁾

번호	서기	간지	왕력	나이	기사
1	1865	을축	고종2	1세	○3월 3일 강진 생. ¹⁶⁾
2	1866	병인	고종3	2세	○6월 27일. 조 김일엽(金日曄) ¹⁷⁾ 졸 (향년 87).
3	1869	기사	고종6	5세	○부 김도순(金道淳)에게 공부시작. ○천자(千字)를 배우다.
4	1870	경오	고종7	6세	○격몽요결(擊蒙要訣)을 배우다.
5	1873	계유	고종10	9세	○10월. 부친이 금갑진 만호의 임기를 마치고 강진으로 돌아오다.
6	1875	을해	고종12	11세	○경사(經史)를 통하다.
7	1877	정축	고종14	13세	○제술(製述)을 공부하다.
8	1878	무인	고종15	14세	○오남 김한섭(대명동 寒泉精舍)에게 사사.
9	1879	기묘	고종16	15세	○오남 선생과 도갑사 여행. ¹⁸⁾
10	1880	경진	고종17	16세	○영월엄씨와 혼인.
11	1882	임오	고종19	18세	○오남 선생과 도갑사 여행. ○중암 김평묵(신안군 지도) ¹⁹⁾ 에게 사사. ○척사대의(斥邪大義)와 화서(華西) 선생 <아언(雅言)>을 배우다.

15) <경회당 행장>(이석천 저), 『김해김씨송정파세보(2005년 간)』, 경희의 시<삼월삼일생조 지감(三月三日生朝志感)>, <한천정사강록(寒泉精舍講錄)> 등을 참조하여 작성하였다.

16) 경희가 태어난 곳이 어디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강진군 칠량면 명주리 명동마을이라는 설, 강진군 대구면 향동이라는 설, 강진을 목리 초지마을이라는 설이 있다. 9살 이후 소년시절을 보낸 곳은, 부친 심어당이 금갑진 만호의 임기를 마친 후 돌아와 정착한 강진군 칠량면 명주리 명동마을(현 강진을 칠량면 명주리 480번지)이다.

17) 김일엽(金日曄. 1780.6.25.~1866.6.27.). 배 금녕김씨(1781.6.18.~1857.6.4.). 묘 강진 도암면.

18) 『경회집』, <원유일록>, ○5월 24일, “憶己卯·壬午年中, 陪先師吾南先生, 來游之事.”

19) 중암 김평묵의 지도 유배기간은 1881~1884년이다. 김평묵은 1881년(고종 18) 2월 김홍집(金弘集)이 『조선책략(朝鮮策略)』을 유포한 것을 비판하고 이만손(李晩孫)을 비롯한

번호	서기	간지	왕력	나이	기사
12	1886	병술	고종23	22세	○3월. 강진 천태산 정수사(淨水寺)에서의 강설에 참여하다. <경재잡(敬齋箴)>
					○3월 말. 딸 난숙(蘭淑) 요사. ²⁰⁾
					○4월 21일. 부 김도순 졸(향년 67) ²¹⁾
					○8월 25일. 부 김도순 장례.
13	1887	정해	고종24	23세	○11월 10일. 큰 아들 효주(孝柱, 일명 孝植) ²²⁾ 출.
					○신종계(愼終契)를 만들다. ²³⁾
14	1888	무자	고종25	24세	○8월 4일. 백부 김재순(金載淳) 졸.
15	1890	경인	고종27	26세	○9월 15일. 한천재 강설에 참여하다. <심잡(心箴)>
16	1892	임진	고종29	28세	○2월. 딸 난경(蘭敬) 출. ²⁴⁾
					○3월 9일. 봉양정사(鳳陽精舍) 강설에 참여하다. <빈이무침불환인지불기지양장(貧而無諂不患人之不己知兩章)>

1만여 명의 영남 유생들이 올린 위정척사 상소문을 보고 감탄하여 이를 후원하였다. 경기 유생을 위해 상소문을 짓고, 홍재학(洪在鶴) 등이 올리는 상소의 끝에 자신의 견해를 덧붙였으며, 8월 적양(斥洋)·적왜(斥倭) 상소로 전라도 지도(智島)로 유배되었다. 1882년(고종 19) 유배에서 풀려났으나, 9월 흥선 대원군(興宣大院君)이 청나라에 잡혀 가자 다시 지도로 유배되었다. 1884년(고종 21) 임오군란으로 흥선 대원군이 집권하자 풀려났다. 1891년(고종 28) 12월 20일 운담 정사(雲潭精舍)에서 죽었다.[디지털포천문화대전 참조]

- 20) 『경회집』, <답황수재명규(答黃秀才明奎)>, 병술사월초이일(丙戌四月初二日), “永根近見幼女之夭.”
- 21) 김도순(金道淳. 1820.9.25.~1886.4.21.) 배 선산김씨(1819.7.21.~1851.1.11.). 묘 대덕읍 진목리. 배 창녕성씨(1831.8.1.~1913. 1.10.) 묘 병영면 박동리.
- 22) 1910년 중국 간도 행차를 한 이후 행방이 불명이다.
- 23) 『경회집』, <신종계서(愼終契序)>, “往年丁亥, 余與丁剛軒采文·魏弘毅大彥, 作一稷, 後黃剛克文五, 亦與焉. 名之曰愼終.”
- 24) 『경회집』, <원유일록>, ○6월 15일, “向安城路中, 有懷亡女蘭敬, 愴然得一絕. 壬辰二月敬娥生…….”

번호	서기	간지	왕력	나이	기사
16	1892	임진	고종29	28세	○8월. 중암 선생을 곡. ²⁵⁾
					○9월 15일. 봉양정사(鳳陽精舍) 강설에 참여하다. <진관일절(進盥一節)>
17	1893	계사	고종30	29세	○3월 9일. 봉양정사(鳳陽精舍) 강설에 참여하다. <논어수장(論語首章)>
					○9월 15일. 봉양정사(鳳陽精舍) 강설에 참여하다. <논어담대멸명장(論語澹臺滅明章)>
18	1894	갑오	고종31	30세	○모월. 딸 난중(蘭重) 출.
					○동학(東學)으로 완도(莞島)로 피신하다. ²⁶⁾
					○12월 7일.二兄 영필(永弼) ²⁷⁾ 출.
					○12월 24일. 오남 선생 출.
19	1895	을미	고종32	31세	○5월 26일. 연재 송병선에게 편지를 쓰다.
20	1896	병신	고종33	32세	○7월. 학질을 앓다. ²⁸⁾
21	1897	정유	대한제국1	33세	○7월 6일. 둘째 아들 성주(聖柱. 일명 中植) ²⁹⁾ 출.
22	1898	무술	대한제국2	34세	○1월 7일. 면암 최익현에게 편지를 쓰다.
					○윤3월 14일. 백모 동복오씨 출.
					○초가을. 강진 천태산(天台山)에 살다. ³⁰⁾

25) 『경회집』, <원유일록>, ○6월 25일, “余以壬辰八月, 奔哭象生而歸.”

김평묵은 73세의 나이로 1891년(신묘) 12월 20일 포천 운담정사(雲潭精舍)에서 졸하였다.

26) 『경회집』, <신종계서(慎終契序)>, “余奔竄莞島, 母子俱全.”

27) 김영필(金永弼. 1846.8.1.~1894.12.7.) 갑오 동학 때 해(害)를 당했다.

28) 『경회집』, <답여흥민씨(答魏大彦)>, “丙申七月九日…比經瘡疾, 神氣萎然, 只此奉疏, 伏惟鑑察.”

29) 김성주(金聖柱, 1897.7.6.~1965.7.22.)의 자는 희선(希宣). 배는 광산김씨(1901.8.8.~1979.

번호	서기	간지	왕력	나이	기사
23	1900	경자	대한제국4	36세	○3월 16일. 四兄 영철(永哲) 졸. ³¹⁾
24	1901	신축	대한제국5	37세	○1월 2일. 부인 엄씨 졸. ³²⁾
					○1월 20일. 난중(蘭重) 요사(8세). ○2월 27일. 난경(蘭敬) 요사(10세). ³³⁾
25	1903	계묘	대한제국7	39세	○5월 15일. 아들 평식(平植) ³⁴⁾ 출.
26	1906	병오	대한제국10	42세	○5월 19일 중국 요녕성 요양 원유에 오르다. 이때의 기행을 <원유일록(遠遊日錄)> ³⁵⁾ 으로 기록하다.
27	1907	정미	순종1	43세	○3월. 간도에서 돌아오던 길에, 영평 수운담 중암 사당에 참배하고, 춘천 가정자촌에 이르러 류인석(柳麟錫, 1842~1915)을 만나 4~5일을 머무르며 문답하다. ³⁶⁾
28	1909	기유	순종3	45세	○10월 25일. 의암 유인석으로부터 편지를 받음.

1.21.) 묘 강진읍 교촌리.

- 30) 『경회집』, “往在戊戌初秋, 余居康津天台山.”
- 31) 김영철(金永哲, 1860.1.7.~1900.3.16.). 배 창원황씨.
- 32) 경희의 초배 엄씨는 아이를 출산하고, 엄씨와 신생아가 3일 간격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경회집』, <제망실유인엄씨묘문(祭亡室孺人嚴氏墓文)>, “豈知解婉之適在於是時, 而乳孩及母, 先後死於三日之間乎?”
- 33) 『경회집』, <제망실유인엄씨묘문(祭亡室孺人嚴氏墓文)>, “次女蘭重, 自成服前遭疾, 以六日癸酉輿歸五兄家, 二十日丁亥, 竟不起. 長女蘭敬, 以二十四日辛卯來五兄家, 越三日患痛風, 二月二十七日癸亥, 又不救.” 『김해김씨송정파세보』에는 엄씨가 1900년에 졸한 것으로 되어있으나, <제망실유인엄씨묘문>에는 신축년(1901) 정월 이일 기사에 죽었다고 하였다.
- 34) 김평식(金平植, 1903.5.15.~1950.8.20.). 경희의 계배 탐진최씨 소생이다. 배 탐진최씨(1905.5.5.~1985.3.6.) 묘 칠량면 월궁리.
- 35) 이 원유에 함께한 사람은 홍의(弘毅) 위봉식(魏琫植)·익경(益卿, 호 後圃) 조동겸(趙東謙)·인부(仁夫) 홍병원(洪秉元)·김효주(金孝柱, 경희의 큰아들)이다.
- 36) 『경회집』, <가정문답(柯亭問答)>.

번호	서기	간지	왕력	나이	기사
29	1913	계축	일제침략하 한국	49세	○1월 10일. 모 창녕조씨 졸(향년 83). ³⁷⁾
30	1915	을묘	〃	51세	○가족과 함께 북간도로 망명을 떠났다가 정착할 대책이 없어 회향하던 중 두만강 위에서 도적떼를 만나 몸을 상한 뒤 병을 얻고, 천신만고 끝에 귀향하다. ³⁸⁾ 경희의 항일 저항정신은 조카 죽동(竹洞) 김후식(金厚植) ³⁹⁾ 에게 커다란 영향을 주다.
31	1916	병진	〃	52세	○5월 19일. 류인석의 사망 소식을 듣고 신흥리 서실에서 곡을 하다. ⁴⁰⁾ ○신흥서관에서 후학을 양성하다. ○겨울. 중암 김평묵의 적소인 지도 두류산의 두류단에 비를 세우다.
32	1917	정사	〃	53세	○10월 9일. 딸 보아(寶娥) 졸. ⁴¹⁾ ○10월. <육영재기(育英齋記)>를 짓다. ⁴²⁾
33	1918	무오	〃	54세	○7월 상순. <창랑정상량문>을 짓다. ⁴³⁾

37) 『경회집』, <삼월삼일생조지감(三月三日生朝志感)>시, “二十二歲哭先君, 四十九歲喪先妣.”

38) 『경회집』, <삼월삼일생조지감(三月三日生朝志感)>, “逢萌故事矢一心, 哭辭親塋雪悲涕. 好事翻得造物猜, 衝風踏雪向故山. 豆滿江上猝遇賊, 萬死還出鬼門關.”

39) 죽동 김후식(金厚植, 1896.5.20.~1961.6.20.). 기미년(1919) 강진지역 3·1운동의 선봉장이 되었다. 1986년 정부는 독립유공자로 지정하여 대통령 표창을 수여하였다.

40) 『경회집』, <제의암유선생인석문(祭毅菴柳先生麟錫文)>, “以十九日丁亥, 設位于新興里書室, 奠玄酒一觴哭之以文.”

41) 『경회집』, <女兒寶娥亡日癸亥十月九日>, “死別居然已六霜, 一盂白飯祭中堂. 年年此日無窮恨, 白髮悠然對夕陽.”

42) 육영재는 경희의 동학 위력기(魏赫基, 자 致明, 1866년 생)의 서당이름이다. 강진 칠량면 동리 소재.

43) 전남 장흥군 장흥읍 소재. 신유년(1921)에는 창랑정 현판 <제창랑정>시와 <창랑정소인>을 지었다.

번호	서기	간지	왕력	나이	기사
34	1924	갑자	임시정부6	60세	○3월 1일. 백형 영욱(永郁) ⁴⁴ 졸.
					○12월 7일. 부인 탐진최씨 졸.
35	1926	병인	임시정부8	62세	○4월 4일. 삼모 영구(永龜) ⁴⁵ 졸.
					○세 번째 부인 홍씨를 맞이하다.
36	1927	정묘	임시정부9	63세	○모월. 딸 월아(月娥) 출. ⁴⁶
37	1928	무진	임시정부10	64세	○8월 20일 五兄 영준(永準) ⁴⁷ 졸.
38	1934	갑술	임시정부16	70세	○12월 7일 졸. 강진군 칠량면 현평리. 묘 칠량면 월궁리 산217-1.
39	1960년대				○6·25 동란 때 경희의 저술이 유실되다.
40	1980년대				○경희의 후손 병린(炳麟)이 각 처를 수소문하여 경희의 산고를 수집하여 경희의 고제자 정학수(丁學洙)와 함께 문집을 정리하다.
41	2010				○2월. 강진군에서 『국역 경희집』(이백순·최한선 역)을 발행하다.
42	2013				○3월. 영인본 『경희집』을 발행하다(아세아문화사).

44) 김영욱(金永郁, 1839.1.3.~1924.3.1.). 배 여산송씨. 계배 탐진최씨.

45) 김영구(金永龜, 1849.11.22.~1926.4.4.) 배 경주정씨. 계배 탐진최씨.

46) 『경희선생시집』에 〈여아금팔세(女兒今八歲)〉 시가 수록되어 있다. 경희가 즐하던 1934년에 지어진 시이다. 경희가 죽음에 임하면서 늙둥이라서 더욱 관심이 가는 여덟살 딸아이 생각이 눈물이 옷깃을 적신다는 내용이다. “女兒今八歲, 晚得更關心. 臨死無他念, 念茲淚滿襟.”

47) 김영준(金永準, 1863.2.26.~1928.8.20.) 배 장흥임씨. 계배 언양김씨. 계배 창녕조씨.

3. <원유일록>의 여정과 수록 한시의 특징

3.1. <원유일록>의 여정

경희 일행의 간도 요녕성 요양 원유의 길은 고난의 여정 그 자체였다. 식사와 잠자리, 추워져가는 날씨에 옷과 신발의 교체 문제에 직면하였다. 험난하기만한 미지의 길을 걷고 또 걸으며 발이 붙어 트는 일은 부지기수였다. 함경남도 영흥진으로 가는 여정 중에는 삼포강(三浦江)과 오포(梧浦)를 지나며 맨발로 갈대밭 사이를 걸어가다가 열 번 아홉 번 엎어지고 거꾸러지다가 길까지 잃어버리는 극한의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다.⁴⁸⁾

식사는 주로 여로(旅路)의 점(店), 지인의 집, 각 지역의 서숙 등에서 해결하였다. 상황이 여의치 않을 때에는 집에서 준비해 간 볶은 찹쌀가루를 물에 타서 먹거나, 쌀가루를 달여서 마셨다.⁴⁹⁾ 참빗(眞梳)과 붓은 원유를 출발하기 전 노자로 쓰기 위해 확보한 물품이었는데,⁵⁰⁾ 노자가 떨어진 날의 밥값과 여관비, 새로 지은 겨울옷값 등을 마련하는데 주요하게 쓰였다.⁵¹⁾

경희일행이 이동한 여정을 읍치중심으로 살펴보면, 강진→영암→나주→장성→정읍→태인→금구→전주→고산→은진→연산→진잠→공주→연기→전의→목천→천안→직산→안성→양성→진위→수원→광주→양주→포천→김화→금성→회양→안변→덕원→문천→영흥→정평→함흥→북청→갑산→삼수이다. 경희의 수택본 <원유일록>은 갑산과 삼수, 압록강을 건너 중국 요양(遼陽, 요

48) 『경희집』, <원유일록>, 〇7월 7일, “晴. 登舟及上岸, 跣足而行蘆田泥濘, 十顛九倒. 中間迷路, 艱難萬狀, 僅到梧浦.”

49) 『경희집』, <원유일록>, 〇6월 22일, “出囊中米屑, 煮飲.”; 〇6월 25일, “就川邊, 煮飲米屑.”

50) 『경희집』, <원유일록>, 〇6월 30일, “筆·梳只爲供資斧.”; 〇7월 28일, “爲充給縫債, 令仁夫, 向東薪洞近地, 賣筆·梳.”; 〇7월 29일, “入昌坪里塾, 賣筆二枝.”

51) 조선시대 참빗은 경상남도와 전라남도 지방에서 많이 생산되었다. 특히 유명한 곳은 영암, 담양, 나주, 남원 이었다고 한다. 영암과 담양에서 생산된 참빗은 전국에서 유명세를 얻었고, 19세기 초에는 세계 여러 나라로 수출되기도 했다. 영암 참빗의 주산지는 영암읍 망호리와 송평리 일대였으며, 이 지역에서 참빗을 생산한 집은 500가구가 넘었다고 한다.(『영암참빗』, 영암문화원, 2016. 참조)

녕성)에서의 생활상도 기록하였을 것이나, 현전 『경희집』 소재 〈원유일록〉의 마지막 기록은 갑산읍을 떠나 허천강(虛川江)을 건너 호린사(呼麟社)⁵²⁾ 어은동 상·하리까지의 모습에 그쳐있다. 국내 이동 여정을 대동여지도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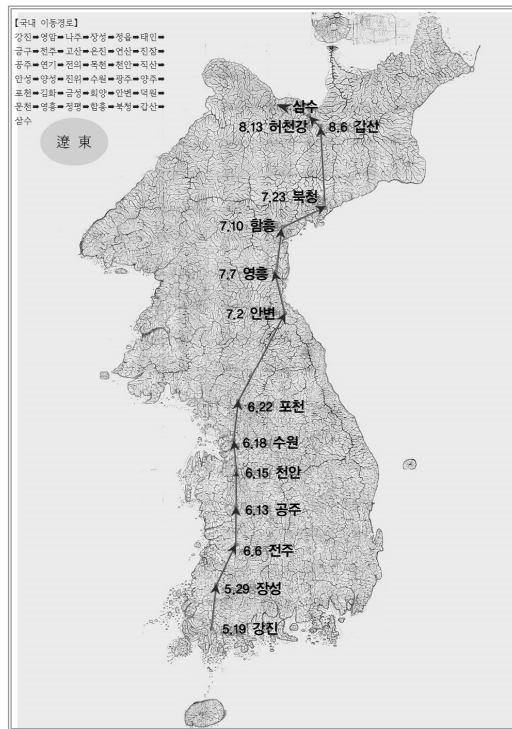


도표 2. 국내이동 여정도

52) 호린사는 삼수(三水)로 가는 방향에 있고, 허천강 건너에 있다. 이로써 본다면, 경희 일행이 갑산에서 선택한 요양(遼陽)까지의 행로는 갑산→삼수→압록강→중국 요양으로 추정된다.

- 〈여지도〉 갑산부(주기), “지호린사십리(至呼麟四十里).”
- 〈광여도〉 갑산부(주기) 해제. “남쪽에 있는 지금의 함경산맥에서 발원하여 북쪽으로 흘러온 허천강이 혜산진 앞에서 압록강과 합류하여 서쪽으로 빠져나간다.”

3.2. <원유일록> 수록 한시의 특징

<원유일록> 수록 총 234수의 한시 작품은 5언 절구 27수, 5언 율시 3수, 7언 절구 181수, 7언 율시 23수이다. 경희는 일록의 여정마다 문학작품을 창작하였다. 여정의 도중에 벌어진 이합, 장소와 공간, 사건과 단상을 시로써 표현하였다. 본 장에서는 다음과 같이 험난한 원유 여정과 고난, 일제의 만행과 울분 토로, 위척존양(衛斥尊攘)의 의리, 애련과 그리움의 가족애, 궁핍과 부유의 신세 한탄, 변속(變俗)의 세태 탄식 등의 항목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3.2.1. 험난한 원유의 여정과 고난

현전 <원유일록>은 5월 19일~8월 21일 까지 약 3개월간의 기록이다. 미지의 여행 중에 겪은 고생이 짙게 묘사되어있는데, 특히, 날씨·힘로·노자·음식·잠자리·의복·발병 등의 문제로 고통을 받았다.

강진에서 출발 할 때인 5월(양력 7월)에는 덥지 않았던 날씨가, 6월(양력 7월 말~8월)로 접어들자 무더워지기 시작하였다. <원유일록> 6월 10일(양력 7월 30일)에는 전라북도 화평(華坪, 오늘날 화산)을 떠나 묵곡현(墨谷峴)을 넘었을 때의 힘든 상황이 시로 적혀있다. “온몸에 땀이 흐르니 옷은 비에 젖은 듯하고, 큰 불이 심장을 데우니 목구멍에서 연기가 인다.”⁵³⁾고 하였다. 7월 26일(양력 9월 14일) 함경도를 지나고 있던 때에는 “서리가 내려 몸에는 소름이 일고, 차가운 콧물이 난다.”고 했고, 8월 14일(양력 10월 1일)에는 첫눈과 비가 밤새도록 그치지 않고 쏟아지기도 했다.⁵⁴⁾ 경희일행은 북청(北靑)을 떠나 갑산(甲山)으로 이동해 갈수록 점점 더해지는 매서운 추위를 온몸으로 느끼며 요양(遼陽)으로의 행차를 더욱 재촉하였으나 폭설로 행차를 중단한 일도 많았다.

길은 평평한 육로도 있지만 길이 분명하지 않은 풀밭도 있었다.⁵⁵⁾ 강과 하

53) 『경희집』, <원유일록>, ○6월 20일, <踰墨谷峴日熱特甚作一詩>, “遍身流汗衣沾雨, 大火熏心喉起烟.”

54) 『경희집』, <원유일록>, ○7월 26일, <檜巖村路中>.“霜落寒山秋水清, 朔方七月早寒住. 脫衣相贈知誰在, 體粟難禁冷涕橫.”; ○8월 14일, “至夜雨雪.”

천, 산과 고개, 계곡을 만나는 경우도 부지기수였다. 7월 23일 함흥 원평시에서 북청으로 향하던 날에는 골이 깊고 계곡소리가 요란한 험한 길을 돌과 나무를 잡고 건너다가 외나무다리를 건넜다. 눈 깜짝하는 사이에 일행을 잃어버리고, 서로 이름을 부르며 찾는 일이 끊이지 않았다고 기록하였다. 물을 만나면 바지를 벗고 건넜고, 갈대밭에서는 맨발로 걸었다. 이빨처럼 뾰족한 돌 모서리는 쉬 짚신을 물어뜯었고,⁵⁶⁾ 북방 만 리 가는 곳마다 헤진 신발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눈초리는 차가웠다.⁵⁷⁾

노자는 가져 간 것 보다는 현지에서 해결해 가며 이동했다는 말이 더 적합하다. 돈이 떨어진 뒤에는 참빚으로 값을 지불하였는데, 여관 주인들이 현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시비가 일기도 하였다. 붓은 주로 서숙(書塾)에 들어가서 팔았고, 더러 개인들의 요청에 의해 만들어 주기도하였다.⁵⁸⁾ 다음 시는 7월 4일 함경도 안변 용지원 남산점 파발막에서 유숙하고 밥값을 내지 못해, 경희의 벗 위봉식(魏捧植)과 아들 김효주(金孝柱)가 빚과 붓을 팔러 석왕사가 있는 마을에 내려간 사연을 읊은 것이다.

囊空寄宿店人廬	점인의 집에 기숙하고도 주머니가 비었나니
兒子尋村賣筆梳	자식이 마을을 찾아 붓과 빚을 판다네.
半日旅窓愁獨坐	나그네 근심 속에 창가에 반나절을 앉았으니
誰知天地有無余	천지간에 내가 있는지 없는지를 그 누가 알리오?
〈朝飯後未償食債〉	

식사는 지인의 집, 글방 등 불특정 장소를 방문하거나, 볏은 찻쌀가루나 쌀

-
- 55) 『경희집』, 〈원유일록〉, ○6월 21일, 〈楊州路中〉, “草多路不明, 待問始前行. 旅店何稀濶, 忍飢半日程.”
- 56) 『경희집』, 〈원유일록〉, ○8월 1일, 〈楡坪路甚岐嶇賦一絕〉, “齒齒石稜齧艸鞋, 深林左右笠端齊.”
- 57) 『경희집』, 〈원유일록〉, ○7월 14일, 〈同伴分向村中余被池氏所挽落留走筆贈二絕〉, “朔方萬里弊芒靴, 到處逢人白眼多.”
- 58) 『경희집』, 〈원유일록〉, ○6월 30일, 〈發昌道〉, “筆梳只爲供資斧.”

가루를 물에 타서 먹었다.⁵⁹⁾ 그마저도 여의치 않을 때에는 한 끼 끼리의 밥을 아껴 두 끼로 먹거나, 구걸, 굶기도 다반사였다.⁶⁰⁾ 강진 집을 떠난 지 한 달이 다 되어가던 6월 19일에는 경기도 수원에 도착하였는데, 몹시 허기지고 피곤한 상태를 기록하였다. 아침 일찍 수원 하류천(下柳川)을 출발하여 수원읍 시장까지 40리 길을 걸어가서 비로소 식사를 처음 하거나⁶¹⁾, 아침을 굶고 30리를 걸어가서 식은 밥 한 덩어리를 먹었다⁶²⁾고 기록하였다. 심지어는 노자를 아끼느라 굶는 날도 많았다. 여관에서 자고난 이튿날 아침은 거의 거른 듯 식사를 하였다는 기록이 없다. 다섯 사람은 식사를 해결하기 위해 두 사람 세 사람씩 나누어 이합(離合)을 무상하게 하였다. 다섯 사람이 한 집에서 얻어먹기 보다는 둘 셋씩 나누어 구걸하는 편이 좀 더 수월하였던 탓이다.

북방으로 올라갈수록 음식은 현저히 입에 맞지 않았다. 호남에서는 주식으로 먹지 않는 귀보리(耳麥)나 감자떡, 귀보리 가루에 호박을 섞어 만든 떡을 먹었다. 귀보리밥을 처음 먹게 되었을 때에는 설사를 심하게 하여 기력이 떨어져 죽을 지경이 되기도 하였다. 경희의 다음 시는 7월 21일 우상동(右相洞) 위씨촌(魏氏村)에서 머물며 관인이 제공한 귀보리밥을 먹고 한밤중에 설사를 다섯 차례나 했다는 내용의 시이다.

生長湖南稻飯鄉	호남의 쌀밥 고을에 태어나서
不知耳麥亦堪嘗	귀보리도 먹을 수 있다는 걸 몰랐지.
一匙入口雷聲吼	한 숟가락 입에 들자 뇌성 소리 나고
裏急終宵臥起忙	급한 속은 밤새 누웠다 일어나기 바쁘도다.
〈館人進耳麥飯夜中泄瀉五度〉	

59) 『경희집』, 〈원유일록〉, 〇6월 22일, “出囊中米屑, 煮飲.”; 〈원유일록〉, 〇6월 25일, “就川邊, 煮飲米屑.”

60) 『경희집』, 〈원유일록〉, 〇6월 27일, “可笑丈夫少路錢, 午空偏荷館人憐.”

61) 『경희집』, 〈원유일록〉, 〇6월 19일, “早發向水原邑飢憊殊甚.……到水原邑市, 四十里始飯.”

62) 『경희집』, 〈원유일록〉, 〇6월 21일, “至朝元峴店三十里, 喫了冷飯.”

그러나 굶주리는 날이 많아지자 목구멍에 내려가지 않던 감자떡과 거친 귀 보리밥도 쌀밥같이 여겨지게 되었고,⁶³⁾ 식은 밥 한 그릇이 천금처럼 여겨졌다.⁶⁴⁾

경희 일행 다섯 명은 긴 여로에 피로와 영양부족, 변변치 못한 의복으로 심한 일교차를 견뎌내느라 돌아가며 병을 앓기도 하였다. 가장 먼저 앓아누운 사람은 경희의 큰아들 김효주이다. 김효주는 6월 21일 경기도 양주 조원현점(朝元峴店)에서 극심한 피로로 앓아누웠고, 7월 4일 원산에서는 급체와 설사증으로 아버지 경희를 안타깝게 하였다. 경희와 후포 조동겸은 각기증(脚氣症)을 앓았다. 경희는 8월 2일 갑산 내동 태씨촌(太氏村)에 이르러 기침이 심해져 잠을 이룰 수 없었던 상황을 다음과 같이 읊었다.

夜深霜重著單襦	서리가 많이 내리는 깊은 밤 홀저고리를 입고
喀喀寒窓擁唾壺	콜록콜록 추운 창가에서 침 항아리를 안고 있네.
閉眼默籌今古事	눈을 감고 묵묵히 고금의 일을 헤아리니
八荒風雨入長吁	온 세상의 비바람에 긴 한숨만 나오도다.

〈至晚席散臨臥咳嗽頗甚不能寐感吟〉

의복도 문제였다. 5월과 6월에는 찌는 듯한 무더위로 땀에 절은 옷의 세탁이 문제였고, 7월과 8월 북방으로 향할수록 급격히 온도가 떨어져 겨울옷을 장만하는 일이 급선무였다. 모든 여정을 예측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경희 일행은 필요한 의식주를 그때그때 벌어지는 상황에 따라 맡기면서 해결하였다. 노자가 떨어져 참빗과 붓으로 대납하며, 타향에서의 한 끼 식사, 하룻저녁 은신할 곳을 찾기란 그리 녹녹치 않은 고난 그 자체였다.

63) 『경희집』, 〈원유일록〉, 〇7월 25일, 〈入熊耳社三台洞吳姓人家午炊作一絕〉, “耳麥飢來如稻飯, 歸家尙記此時不.”

64) 『경희집』, 〈원유일록〉, 〇7월 25일, “夜中一飯敵千錢.”

3.2.2. 일제의 만행과 울분 토로

경희는 원유의 여정 곳곳에서 일제의 잔악한 만행을 목격하고 울분을 토로 하였다. 산하 곳곳에 설치된 병참(兵站)과 일병(日兵), 부역에 동원된 백성들의 참상을 바라보며, 한없이 무기력한 대한제국의 현실을 기록하였다. 일본인 병참을 목격한 장소는 6월 26일 강원도 김화(金化)·7월 5일 함경도 원산(元山)·8월 7일 갑산(甲山)·8월 11일 갑산 석우리(石隅里)이다. 주객이 전도된 산하는 일본인이 주인이 되었고, 그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을 노약자를 가리지 않고 노예처럼 부렸다.⁶⁵⁾ 일인들은 때 없이 우리백성을 징집해 군량을 운반하였고,⁶⁶⁾ 군사도로를 건설하느라 채찍을 가했다.

경희는 강원도 김화에서 일본군이 총칼을 차고 서울을 향해 번개처럼 지나가는 모습을 목격하고, “강산이 결국 누구의 것인가? 행인으로 하여금 절로 눈물이 흐르게 한다.”며 비통해하였다.⁶⁷⁾ 우리나라 백성을 부려서 만든 큰 길과 그 위를 달리는 차들. 편안해서 걷기 좋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나, 경희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저 멀리 하늘을 쳐다본다고 읊었다.⁶⁸⁾

일제의 잔악한 만행의 실상은 7월 11일 함경도 함흥에서도 겪었다. 다음 시는 그 가운데 세 수이다.

樂民樓下日兵行	낙민루(樂民樓) ⁶⁹⁾ 아래에 일본병이 다니고
萬歲橋頭日角鳴	만세교(萬歲橋)의 머리에 일본 호각이 울린다. ⁷⁰⁾

65) 『경희집』, 〈원유일록〉, 〇8월 11일, 〈丁夫治道方殷蓋日人使之也爲賦其事〉, “日人作主我人奴, 沿路修治老弱俱.”

66) 『경희집』, 〈원유일록〉, 〇8월 11일, 〈過石隅里有日人兵站我人以牛馬輿運日人兵糧者甚衆慨然口吟〉, “徵集無時運糧糧, 一任農功拋棄盡.”

67) 『경희집』, 〈원유일록〉, 〇6월 26일, 〈到金化邑見日兵五人以牛馬載物事入京感成一絕〉, “江山竟是誰家物, 却使行人淚自橫.”

68) 『경희집』, 〈원유일록〉, 〇7월 4일, 〈向德源元山見大路平濶可容五車乃是日人役我民而治之者也心甚慨然賦五言一絕〉, “日人役我民, 大道散車輪. 莫說安行好, 撫心仰彼旻.”

69) 낙민루(樂民樓)는 성의 서북에, 만세교(萬歲橋)는 성의 남쪽에 있는데 성천강(成川江)에 걸쳐 있다는 세주가 있다.(樂民樓, 在城西北, 萬歲橋, 在城南, 跨成川江.)

70) 이 시구의 세주에, “매일 날이 저물면 일본군이 교의 남쪽에 나와 호각을 분다(每日暮,

人事居然桑海變
寒江長送不平聲
〈外橋旅館〉1

인사가 어느덧 상전벽해가 되었나니
차가운 강 길게 불평한 소리를 보내는구나.

日官令甲疾如風
狗屍家家一洗空
滌糞亦從我民手
冤聲日夜蒲蒼穹
〈外橋旅館〉2

일본 관원 호령이 바람처럼 급하여
집집마다 개와 돼지 일제히 씻어갔네.
똥을 씻어냄도 우리 백성의 손이니
밤낮으로 원망소리 하늘에 닿는 도다.

城外家家駐日人
城中少艾少全身
離鄉又恐生涯短
忍痛含冤此地民
〈外橋旅館〉3

성 밖 집집에 일본인이 주둔하니
성 안의 젊은 처녀 온전한 몸이 적다.
고향을 떠나자니 살 길 또한 두려워
분통함을 참아내는 이곳의 백성이여.

경희 일행은 함흥 용흥리(龍興里)의 외교에 있는 한 여관에서 자면서, 그 곳에 사는 주민 한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그 북도인(北道人)은 경희 일행에게 눈물을 떨구며 북녘의 실상을 말해주었다. 일본이 북도에 일인 만여 명을 주둔시키며, 주민들의 집과 가축을 강탈하고, 소녀들을 겁탈하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함경도 관동이북이 다시는 한국 백성이 아니라 는 처참한 현실, 생계가 빈궁하여 그 땅을 떠날 수도 없다는 사연들을 듣게 되었다. 경희는 이 말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외교여관(外橋旅館)〉 시 여섯 수를 지었다. 성천강 가 낙민루에 해가 떨어지면 불어대는 일본관원의 호각소리와, 집집마다 쳐들어와 강탈해 가는 가축들. 그리고 일인에 의해 무차별 겁탈을 당하는 어린 소녀들. 생계가 막연한 북녘 백성들은 그러한 고향을 떠날 수도 없었다. 경희는 위의 시를 통하여 함흥 용흥리 외각의 마을에서 자행되고

日兵出橋南吹呼角”라고 쓰여 있다.

있었던 일제의 잔악한 만행을 고발하였다.

다음은 7월 5일 함경도 원산(元山)에 도착하여 지은 <원산십절(元山十絶)> 가운데 두 수이다.

關南名港最元山
越舶唐船盡此間
誰把倭人來作主
三韓日月更無顏
〈元山十絶〉2

관동 남쪽의 유명한 항구가 원산이니
월나라 당나라의 선박이 모두 모였네.
누가 왜인이 와서 주인이 되게 하였는가?
삼한의 일월이 다시 빛이 없도다.

廟堂高坐世家臣
謀國端能濟一身
尺土無非祖宗物
竟將全幅付強隣
〈元山十絶〉9

조정에 높이 앉은 세도가의 신하들
나라 일 한다면서 제 한 몸만 돌보는가?
척토도 모두 우리 조상의 물건인데
끝내 전 강토를 강림에 내준단 말인가!

원산은 1876년 조선이 일본과 강화도 조약을 맺으면서 1880년에 개항장으로 지정되었다. <원산십절>에 그려진 원산의 모습은 화륜선까지 깔려 전선의 철사가 거미줄같이 펼쳐 있고, 병참이 바둑판같이 배치되어있다. 양철 지붕과 붉은 벽돌의 화려한 집, 금벽에 빛나는 천주당의 건물이 있다. 거기에 인력거의 소리가 시장을 뒤흔들고, 신랑(腎囊)만 바듯이 가린 일인들의 복식을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 바라본다. 머리를 깎고 왜말을 배우는 사람들. 경희가 바라본 원산은 ‘그저 괴롭고 쓸쓸한 비가 흩뿌리는, 도개비 같은 도시일 뿐’이었다.⁷¹⁾

경희는 원산항에서 누란지위의 나라, 빛을 잃은 국토, 점점 이욕의 가치에 물들어 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목도하였다. 그리고 조정에 앉아 제 한 몸만 챙

71) 『경희집』, <원유일록>, 07월 5일, <원산십절> 중 여덟째, “羽毛鷓鴣縱橫地, 苦雨淒風夜未央.”

기는 세도가들에게 크게 분노하였다.

3.2.3. 위척존양(衛斥尊攘)의 의리

위척존양(衛斥尊攘)은 위정척사(衛正斥邪)와 존화양이(尊華攘夷)를 가리킨다. 경희는 화서(華西)→성재(省齋)→중암(重菴)으로 이어지는 기호학과 중에서도 화서학맥을 계승하였다. 화서학과 인물들은 조선후기와 일제침략기 항일 독립운동에 선봉에 섰다. 척양척왜(斥洋斥倭)의 장소, 조정과 일본에 항의문 전달, 항일의병항쟁 및 독립운동, 애국계몽운동, 민족교육 학교설립, 독립자금 지원, 강학교육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활동을 펼쳤다.

경희는 서교(西教)가 주장되어감에 따라 정도(正道)인 유학이 점차 쇠미해져 가는 것을 보며 '사문(斯文)은 어디로 돌아가는가?'라고 탄식하였다. 원유 도중에 사서삼경을 읽고 배우는 사람들을 만나면 마음이 절로 숙연해지는 동지 의식을 느꼈다. 다음이 8월 17일 갑산 석산동(石山洞) 주촌(朱村)에서 있었던 일이다.

○ 8월 17일. 맑다. 오후에 나는 대연과 자식 효주로 더불어 석산동의 주촌(朱村)으로 향하여 그 곳 글방선생 강창모(姜昌模, 學先)를 찾았으나 만나지 못하였다. 문인 주창남(朱昌南)이 와서 뵈었다. 조금 있다가 창남의 부친인 주치준(朱致俊, 貫中)이 청하여 그 집으로 가서보니 창남이 바야흐로 『논어』를 읽고 있었다. 내가 글 뜻을 조금 물어보았고, 절구 한 수를 지어 주었다.(시 생략) 관중이 보첩(譜牒)을 내보이는데, 주자가 관중에게 27대조였다. 또 가산이 녀덱지 못한데도 칠서(七書)를 사서 자식들을 가르치고 있으니 참으로 훌륭한 일이었다. 두 절구를 지어 주었다.

見君家業極清貧
四傳三經購得新
但願兒郎成德好
用心如此世何人

그대의 가업을 보니 극히 청빈한데
사전삼경 새로이 구입하였구려.
다만 자식의 좋은 성덕만을 바라니
이렇게 마음 쓴 이 세상에 뉘 있으리.

尺步繩趨仰紫陽	걸음걸이 배우면서 자양(紫陽)을 우러렀는데
忽逢遠裔落夷鄉	홀연 먼 후에 이향에 떨어져 있을 줄이야.
斯文今日歸何地	사문은 오늘날 어디로 돌아가는가?
握手初筵意自傷	초면에 손을 잡고 마음 절로 슬퍼진다.

8월 4일~5일 일록에는 함흥 용연리(龍淵里)에서는 안교익(安敎翼)⁷²⁾의 문인 장자삼(張子三)과 세상의 변란에 대해 담화한 내용이 실려 있다. 이 때 장자삼은 변해가는 세상을 탄식하며 그의 스승 안교익이 ‘위척존양(衛斥尊攘)의 의리에 매우 엄했다’고 말하였다. 경희는 이튿날 아침 절구 다섯 수를 지어 장자삼에게 자신의 뜻을 보여주었다. 경희는 이 〈정장문익자삼오절(呈張文益子三五絕)〉 시에서 일본과 서구열강 등 우리나라를 침탈하고자 하는 세력들을 ‘蠍(물여우)과 ‘범(虎)’으로 간주하였다.⁷³⁾ “빼앗긴 국토산하의 산천초목도 모두 슬퍼하는데⁷⁴⁾ “깊은 근심 긴 탄식이 마침내 도움이 안 되고, 저마다 스스로 분발하는 것만 못 하다. 다만 지성이 감천이면 산을 옮기고 바다를 메우는 것도 기약할 수 있을 것이고, 태양은 마침내 못 어두움을 깨뜨릴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읊음으로써 한국의 독립을 간구하였다. 경희는 이를 동안 용연리에 머무르며 장자삼과 압울한 국가에 대한 탄식, 영복의 큰 스승 안교익에 대한 이야기를 이끌어갔다. 경희는 혼재 안교익에게 일찍이 배움을 청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애석함을 피력하고, 대지의 궁음 속에 홀로 핀 꽃이라는 존모의 평가

72) 안교익(1824~1896). 함경도 홍원 풍호리 생. 호는 혼재(渾齋). 안변·이천·북청·갑산·삼수 등에서 강학을 하였다. 안교익은 국토의 북단에서 강학과 항일을 주도했던 인물이다. 문인 정례은(鄭禮殷)의 집에서 국운을 한탄하는 유언을 남기고 출하였다. 박형구(朴亨求)·조병덕(趙秉惠)의 문인이고, 임석영(林奭榮)·전우(田愚)·장석진(張錫軫) 등과 교류하였다. 문집 『혼재집(渾齋集)』이 있다.(고전번역원 참조)

73) 역(蠍)은 물속에 사는 요괴 물여우이다. 이 물여우는 귀신과 같이 그 정체를 볼 수 없는데, 모래를 물고 있다가 물에 비치는 사람의 그림자에 그 모래를 뿌리면 그 사람이 병에 걸리고 심하면 죽기까지 한다는 고대의 전설이 있다. 『경회집』, 〈원유일록〉, ○8월 5일, 〈呈張文益子三五絕〉 중 “물여우가 옛보고 범의 노림이 세상에 넘쳐나니(蠍視虎視溢寰區).”

74) 『경회집』, 〈원유일록〉, ○8월 5일, 〈呈張文益子三五絕〉 중 “山川草木總含悲.” “深憂永嘆竟無裨, 不若人人自奮爲. 但得至誠感天地, 移山填海尚能期.” “太陽終見破羣陰.”

를 내렸다.

경희는 간도로 향하는 원유의 상태에서도 시시각각으로 벌어지고 있는 국내의 상황에 대하여 예의주시하였다. 특히 면암 최익현(崔益鉉, 1833~1906)은 1906년 윤4월 호남에서 의병을 일으켜 항거하였다가 좌절되었고, 7월에는 의병장 임병찬과 함께 대마도로 압송되어 구금되는 사건이 벌어졌는데, 경희는 이 일에 대하여 촉각을 곤두세웠다. 일제의 잔악한 만행의 실상에 분노하면서도 천리는 반드시 인(仁)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신념을 저버리지 않았다.

3.2.4. 그리움과 애련의 가족애

경희는 북진해 올라가면 갈수록 몸은 지쳐갔고, 고향 강진과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가족에 대한 그리움으로 밤잠을 설쳤다. 고향에는 일흔 여섯의 노모와 아내 최씨, 큰며느리, 둘째아들 성주(聖柱)와 셋째아들 평식(平植)이 있었다. 다음 두 편의 시는 6월 19일 경기도 용인 풍덕천점과, 7월 4일 덕원(德源)에서 원산(元山)으로 가는 도중에 지은 사친시이다.

衆星照水明	뭇 별 물에 비쳐 밝은데
微月已三更	희미한 달빛은 벌써 삼경이구나.
一犬獨砧大	한 마리 개 짖는 소리 먼데서 들리고
野鳴孤村迥	외로운 다듬이 소리 큰 들에 울린다.
省躬心自惕	몸을 살피면 마음이 움찔해지고
撫世骨猶驚	세상을 생각하면 뼈도 오싹해진다.
料理鄉園夢	고향 동산의 꿈 깨어나 곱씹어보니
偏深戀母情	더욱 사무치게 그리운 어머니 생각.

〈寄宿龍仁之豐德川店夜成五言一律〉

小子遠遊辭北堂	소자가 멀리 떠나며 어머니께 아뢰니
手予一杖戒關梁	지팡이 쥐어주며 길조심 타이르셨네.
奉携萬里同行止	그 지팡이 짚고 만 리 길을 함께 가니
溫語丁寧那敢忘	따뜻한 그 말씀 정녕 어찌 감히 잊으리.

〈路中撫所持靈壽杖不勝戀親之懷慨然作一絕〉

경희는 5월 20일 원유를 떠나면서 다섯째 형 김영준(金永準)의 집으로 찾아가 모친을 만나 하룻저녁을 잤다. 강진을 떠난 지 한 달이 지나면서는 경기도 용인과 광주를 지났고, 한 달 보름 남짓할 때는 벌써 북녘 원산에 이르게 되었다. 그 간에 벌어진 일은 고난 그 자체이었음은 위에서 살펴본 바이다. 7월 4일은 함경도 안변의 석왕사 근처 파발막에서 하루 유숙하였는데, 아침 밥값을 내지 못해 벗 위봉식과 아들 김효주가 마을에 내려가 붓과 빗을 팔아 지불하였다. 험난한 길, 바닥난 노자, 거친 밥에 흰 소금반찬, 여의치 않은 숙박문제 등 점점 지쳐가던 원유의 상황이었다. 경희는 원유의 길에 모친 창녕조씨가 안겨준 영수장(靈壽杖)을 어루만지며 모친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에 시를 지었다.

○ 7월 16일. 청하다. (위)성일이 쌀밥으로 아침을 냈다. 이렇게 천지가 반복되는 날에 실로 북토에서는 드문 일이다. 노자를 마련하기 위해 후포와 인부, 효주를 권하여 부근의 마을로 나뉘어 들어가 붓과 빗을 팔게 하고, 십구일 만나자고 약속을 했다. 나는 흥의와 함께 있으며, 성일에게 다섯 사람의 옷을 빨아 달라고 부탁을 했다. 이 때 위묵원(魏默源)이 저녁밥을 마련해 놓고 그 아들 정봉(禎奉)을 보내 맞으므로 가서 먹고, 다시 성일의 집으로 돌아왔다. 이 날 밤에 꽤독산 한 첩을 달여 먹었다. 달빛이 뜰에 가득하고 물소리가 베개에 울리니 집 생각을 금할 수 없어, 오연 읊시 한 수와 오연 절구 세 수를 지었다. 그 사친시는 …(시 생략)…, 아내를 생각한 시는, “오랜 이별은 슬프지 않지만, 집이 가난해서 찡그릴 일 많지. 응당 달 밝은 밤이 되면, 손꼽아 돌아올 날 헤아리겠지.”라 하였다. 중자 성주를 생각한 시는, “눈물이 두 옷깃을 적시며, 사정(社亭) 뒤에서 나를 전송했지. 편지 문안이라도 자주하여, 조모님 마음을 슬프게 하지는 않는지.”라 했고, 셋째 평주를 생각한 시는, “작별한 뒤로 석 달이 되었는데, 꺾가에 아버 부른 소리가 쟁쟁하구나. 평안하기만을 바랄 뿐, 자잘한 일까지야 어찌 말하리.”라 하였다.⁷⁵⁾

75) 『경희집』, 〈원유일록〉, ○7월 16일, 〈思內〉, “久別未爲悲, 家貧多蹙眉. 想應明月夜, 屈指計歸期.”; 〈思仲子聖柱〉, “淚痕濕兩襟, 送我社亭陰. 倘得勤書冊, 不傷祖母心.”; 〈思叔子平柱〉, “一別月三盈, 耳邊喚父聲. 平安惟所冀, 瑣瑣不關情.”

7월 14~20일은 함흥 원평시 우상동 장흥위씨 세거 집성촌에 머물렀다. 7일 동안이나 우상동에 머무른 것은 빨래와 노자 마련 등의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위성일(魏聖日)을 포함한 위씨 종족들은 경희 일행을 고향에서 온 손님 처럼 극진히 대접하였다. 원유의 일행 가운데 한 사람인 위봉식(魏琇植)이 동족인 까닭이기도 하다. <원유일록>에는 위성일의 20대조 위자공(魏自恭)이 장흥에서 북으로 올라가 살기 시작하였다는 주가 기록되어있다. 경희일행은 우상동에서 숨 가쁘게 달려온 원유의 여정을 잠시 쉬면서 음식과 잠자리를 후하게 대접받으며 교류하였다. 경희는 기망(既望)의 교묘한 달빛을 바라보며 사무치는 집 생각에, <사친(思親)>·<思內(思內)>·<사자(思子)>의 시를 지었다. 이때 둘째 아들 성주는 10세, 셋째 평식은 4세였다.

仲秋三五是佳辰
遠客悽然倍憶親
萬里湖南無信使
八旬塞北曠昏晨
細君應對紗窓月
新婦深藏麴米春
男子終非閨閣物
天工豈合讓他人
〈八月望雪不止〉

중추의 보름 좋은 명절이니
먼 곳의 객 쓸쓸히 배나 생각나는 어머니.
만 리 호남에 편지 전할 사람 없고
새북에서 팔순 문안도 드리지 못하네.
아내는 응당 사창의 달을 대할 것이요
며느리는 술을 깊이 갈무리해 두었으리라.
남자는 끝내 안방의 물건이 아니니
하늘이 하는 일을 어찌 타인에게 사양하리?

8월 15일 중추절에는 국토의 최북단 갑산부 호린사(呼麟社) 어하리(漁下里) 학교(鶴阜) 김우형(金禹衡)의 서당에 머무르고 있었다. 전 날 저녁부터 내리기 시작한 첫눈이 그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눈에 갇혀 출발을 하지 못하였는데 때마침 중추절을 맞아, 고향과 가족에 대한 그리움은 배가되었다. 경희는 위의 시를 지어 어머니, 아내, 며느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며 자신을 위로하였다. 경희는 밖으로는 위정척사의 강직한 철학과 우국 사상을 소유한 지식인이었으나, 가정에서는 한없이 섬세하고 자상한 남편이요 아버지였음을 이상의 시에

서 확인할 수 있다.

경희는 70세 생애 동안 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목도하였다. 부모와 형제, 스승, 수많은 친족 동학들의 죽음을 지켜다. 그 가운데 가족의 죽음을 당하여 가장 고통스러웠다. 경희는 첫 부인 영월엄씨와의 사이에서는 다섯 자녀를 두었는데, 장자 효주(孝柱)는 간도에서 생사가 불명이고, 큰딸 난경(蘭敬)과 둘째 딸 난중(蘭重)은 각각 일곱 살과 아홉 살의 나이로 병을 얻어 요사하였다. 같은 해(1900년, 경자, 경희 36세)에 1월 2일에는 부인 엄씨가 다섯째 아이를 낳다가 3일 간격으로 산모와 아이가 죽었고, 1월 20일에는 차녀 난중이, 2월 27일에는 장녀 난경이 잇달아 요사하는 참혹한 일이 발생하였다. 둘째부인 탐진최씨는 1남 2녀를 낳아 한 자녀도 성가시키지 못하고 62세의 나이로 죽었다. 가난한 살림살이와 전실 소생 자녀를 양육해 낸 부인이었다. 경희는 부인 최씨를 위한 제문에서 “가장 생각나는 것은 두만강에서 적을 만났을 적에 나의 다리를 안고 울었던 일과, 성주(聖柱)가 강제로 삭발을 당했을 때에 모자가 서로 끌어안고 크게 통곡을 하던 날을 내가 비록 죽을지라도 어찌 감히 잊겠소?”라고 애도하였는데, 두만강에서 적을 만났다는 사연은 경희 51세 때에 전 가족과 함께 시도한 2차 간도 망명을 가리킨다. 경희는 두 명의 부인과 네 자녀의 죽음을 지켜봤다. 애련(哀憐)의 가족사라 하겠다.

3.2.5. 궁핍과 부유의 신세한탄

경희는 전 생애를 통해 가난과 떠돌이 신세를 한탄하였다. 주요 거주지는 강진 고향이었으나, 십대에는 스승을 따라 공부하느라 집을 떠났고, 삼십 세 때에는 동학으로 완도에 피신을 떠났다. 사십 이세 때에 서간도로의 원유, 오십일 세 때의 간도망명과 귀향, 귀향 후 서실강학과 생활고로 인한 이사도 수차례 하였다.

다음 〈제망실유인엄씨묘문(祭亡室孀人嚴氏墓文)〉에는 궁핍한 집안 사정이 짙진하게 묘사되어있다.

“갑오년 이후로 세번이 망극하여 나는 세상과 어긋나기만 하여 이사를 다짐이 무상하였소. 바다에 뜨기도 하고, 산에 들기도 하고, 북으로 가서 살다가 남으로 가기도 하였으니, 지난해 초겨울 사산에 우거하기까지 무릇 네 번을 옮겼소. 혹은 도로의 사이에서 서성거리기도 하고, 혹은 남의 집 사랑채에 머물기도 하였는데, 타향의 다른 풍속에 얼굴이 익지도 못하고, 죽밥·소금나물로 조식을 잇기도 하였소. 심지어는 헐어진 벽과 뚫어진 창문에 북풍이 뼈에 맺혔소. 낮은 주렴과 딱 막힌 방에서 더운 날 살이 찌는 듯했으니, 어른도 지내기가 어렵거든 어리고 무지한 것들이 견뎌낼 수 있었겠소?”⁷⁶⁾

경희는 위 〈제망실유인엄씨묘문〉에서 서른아홉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부인 엄씨의 생애를 회고하였다. 엄씨와의 짧은 부부생활 동안 네 번이나 이사를 다니며, 남의 집 사랑채에 세 들어 살기도 했다. 산촌과 바닷가마을, 북쪽과 남쪽을 무상으로 옮겨 다녔던 세월. 겨울에는 헐어진 벽 뚫린 창문 탓에 찬바람이 뼈에 맺혔고, 여름이면 딱 막힌 방 탓에 살이 찌지는 듯했다. 어린 자식들이 감내해 내기에는 너무도 가혹한 현실이었다. 엄씨 사후에 맞아드린 계배 최씨와의 가정생활도 간난신고는 때 한가지였다.

(상략)

風絮雨草無定所	바람에 날린 솜 비에 젖은 풀처럼 정처 없어
仰食他人爲塾師	타인에게 얻어먹으며 글방 스승이 되었네.
父母所願不如此	부모의 소망이 이렇지는 않았고
師友所望不如斯	사우의 소망도 이렇지는 않았나.
計日猶記是生朝	날을 헤아리니 생일 아침임은 알 수 있어
客館終日含涕酸	객관에서 종일토록 우느라 코가 시리다.
置酒張樂非吾事	술을 내고 풍악 벌임은 나의 일 아니요
白飯藿湯亦自難	하얀 밥에 미역국 또한 어려운 처지로다.

76) 『경희집』, 〈제망실유인엄씨묘문(祭亡室孀人嚴氏墓文)〉, “甲午以後, 世變罔極, 余與世柄鑿, 遷徙不恒, 浮海入山, 北宅南徂, 至于去年孟冬之寓居獅山, 而凡四遷矣. 或栖違于道路之間, 或居停于人家之廊屋, 異鄉殊俗, 面目不慣, 艾飯鹽菜, 朝夕相繼, 至若頽壁破窓, 北風砭骨, 矮簾室室, 暑日蒸肌, 長者已或難之, 幼穉無知其可以堪.”

貧賤大抵無姓名	빈천하면 대개 이름도 없는 법이거늘
何況生朝有關繫	하물며 생일이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病脚未得走親墓	병든 다리로 아버지 묘소에도 못 가는데
悲風慘淡來天際	슬픈 바람 참담히 하늘가에서 불어오는 것을.

〈三月三日生朝志感〉

경희는 42~3세 때 간도원유를 다녀온 이후, 51세 때에는 전 가족을 데리고 간도망명을 단행하였었다. 그러나 두만강 위에서 졸연 도착떼들을 만나 몸을 상해당하는 봉변을 당하였다. 경희는 이때를 만 번 죽다 살아났다고 회고하였다. 경희의 궁핍과 부유의 인생 역정은 노년으로 갈수록 더했다. 자녀들의 죽음, 생사도 확인할 수 없는 큰아들, 지독한 가난 속에서 밤이면 목이 메어 가슴을 친다고 고백하였다. 있는 집마저 팔아버리고 설경(舌耕)으로 영위해 가는 노년의 삶은 지극히 비루하고 남루하기까지 했다. “나는 옷도 없고, 밥도 없고, 집도 없으니, 세상에 어떤 사람이 이보다 더하랴?”⁷⁷⁾라고 읊어 자신이 처한 궁핍한 모습에 몸서리치기도 하였다.

도학 문장으로 사문의 촉망을 한 몸에 받았으며, 그 정신 그 학문을 온전히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드물었다. “부모의 소망이 이렇지는 않았고, 사우의 소망도 이렇지는 않았다.”는 자탄과 통한의 고백. 하얀 쌀밥에 미역국 한 그릇도 사치가 되어버린 객관에서 홀로 맞은 생일아침. 경희는 그 쓸쓸하고도 허허로운 인생 앞에서 온종일 코가 시리도록 흐느껴 울었다.

3.2.6. 변속(變俗)의 세태 탄식

경희는 밀려들어오는 외부세력에 의해 우리나라의 오랜 전통과 가치가 위협받고 균열되어가는 모습에 큰 위기감을 느꼈다. 서양의 신학을 제일이라 여기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현실에 직면하여 “누가 신학문을 제일이라고 말하는가(新學誰稱爲第一)? 천하에 신학이 사람의 충명을 막는다(普天新學塞人聰).”

77) 『경희집』, 〈무의(無衣)〉. “無衣無食又無家, 世上何人有此加.”

고 말하였다.

경희는 원유의 길에서 목격했던 사람들의 외양을 보고 탄식하였다. 잘라진 상투(斷髮)와 짧게 깎은 머리(髡首), 넓은 소매(闊袖)가 좁은 소매(狹袖)로 변해 가는 세태를 한탄하였다. 의복으로 화이(華夷)를 구분하며, “좌임우임(左衽右衽)은 옛날의 화이, 넓은 소매 좁은 소매는 오늘의 화이”⁷⁸⁾로 규정짓기도 하였다. 경희는 끝내 이 풍진 세상을 돌아보매 마음의 갈피를 잡을 수 없다고 탄식하기도 하였다.⁷⁹⁾ 그러면서도 신학이 아무리 사람의 이목을 뒤덮어도, 우리의 강산은 예나 지금이나 그대로임을 애써 강조하였다.⁸⁰⁾ 경희는 원유 중에 만나는 사람들의 의상과 두발모습을 특히 눈여겨보며 넓은 소매, 높은 관을 보면 눈이 번득 뜨인다고 말하였다(闊袖我冠眼忽明).

다음은 강원도 회양(淮陽) 백산현(栢山峴)에서 만난 한 소금장수가, 머리를 깎고 효건(孝巾)을 쓴 모습을 보고 개탄하여 지은 시이다.

髡首孝巾負海塩	깎은 머리 두건 쓰고 소금을 짚는데
怪他領下尚留髻	괴이하게 턱밑에는 수염이 붙어 있다.
三分五裂知誰咎	삼분오열이 누구의 허물이던가?
說著源頭淚自沾	원류를 말하려니 눈물 절로 흐르도다.
〈見斷髮鹽商頭戴孝巾〉	

1895년 단발령이 내리고 국왕인 고종이 상투를 잘랐지만 백성들은 격렬하게 저항했다. 특히 조선의 성리학 전통을 올곧게 전수받고 이를 지키고자 노력 하였던 유학자들은 더더욱 수치와 모욕심으로 항거하였다. 울분을 참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도 있었고, 의병운동의 도화선이 되기도 하였다. 면암 최익현은 ‘목을 잘릴지언정 상투를 자를 수는 없다.’고 대항하였다. 일제에 의해 자행된 단발령은 민족의 자존심을 송두리째 뽑아 흔들었다.

78) 『경희집』, 〈永湖金丈人深衣歌〉, “左衽右衽古華夷, 廣袖夾袖今華夷.”

79) 『경희집』, 〈원유일록〉, 〇6월 29일, 〈過金城邑〉, “樂山樂水渾閒事, 回首風塵意不裁.”

80) 『경희집』, 〈원유일록〉, 〇7월 2일, 〈峽中吟〉, “新學塗人目, 江山自古今.”

千頭萬緒姑舍是
 淨髮奇禍最難當
 噫噫今日此何日
 劍乎劍乎毋深藏
 顧盼動天地
 指揮定八荒
 殺盡胡雛傾巢穴
 百年長保舊衣裳

(중략)

按劍中夜不成眠
 老人此意安得忘
 〈寶劍篇〉

천 가지 만 가지 모두 놔두고라도
 단발의 기이한 재앙 가장 감당기 어렵네.
 아 아, 오늘이 어떤 날이더냐?
 칼아 칼아, 깊이 숨지를 마라.
 돌아보면 천지를 움직일만하고
 휘두르면 우주를 평정할만하다.
 오랑캐들 모조리 죽여 소굴 엮고
 옛 의상 길이길이 보전했으면.

칼을 부여잡고 밤중까지 잠 못 이루니
 노인의 이 뜻을 어찌 잊으리오!

경희는 〈보검편〉의 시에서 자신의 울분과 분노를 여실히 표현하였다. 모든 일을 다 차치하더라도 가장 견디기 어려운 것이 단발의 재앙이라 말하였다. 사실 경희의 큰아들 김효주가 강제로 머리를 깎이는 수모를 당하기도 하였다. ‘칼아 칼아, 깊이 숨지를 마라. 오랑캐들 모조리 죽여 그들의 소굴을 엮어버리고, 우리의 옛 의상을 길이길이 보전하자’는 표현은 우리 것을 지켜내고자 하는 항거와 외침이라 하겠다.

4. 〈원유일록〉의 문학적 특징과 의의

첫째, 일제 강점기 지조의 한문학이다. 일제강점기 많은 사람들은 신식학교, 일본이나 서양으로 유학을 떠나 신학문과 기독교를 받아들였다. 서당식 한문 교육은 점차 서구식 교육에 자리를 내주고 소외 되어가는 추세가 되었다. 사람들은 머리의 상투를 자르고 하이칼라 스타일을 선택했으며, 흰색의 한복을 벗고 검은색의 양복으로 갈아입었다. 단발령에 항거하던 지식인이나 백성들도

점차 동화되어가고 있었다. 경희는 스승으로부터 올곧게 배운 성현의 학문과 도를 실천하며 살고자 하였다. 그러나 서세동점의 신학문이 몰밀 듯이 몰려오는 격변기 속에서, 성리학을 전수받고자 하는 후학은 드물어갔다. 경희는 신학문의 주장과 구학문이 달라, 헛바다 농사꾼 신세가 무척 어려워졌다⁸¹⁾고 말하기도 하였다. 금전은 일세의 영웅이 되어가고 있었다. ‘하필왈이(何必曰利)’만을 좇는 세상에서 인의(仁義)의 가치는 사라지고, 금전세태는 어느덧 인륜도덕의 가치를 잠식해 들어가고 있었다. 경희는 금전만능의 세태를 탄식하는 내용의 시를 비중 있게 써서 시대에 경종을 울리고자하였다.⁸²⁾

급변하는 시대상황에서 경희의 울분을 달래주고 위로해 준 것이 문학작품의 창작이었다. “시를 손에서 놓기 어렵다.”고 고백하였다. 그러나 경희의 한시는 적어도 옹풍농월만은 아니었다. 주권 없는 백성으로서의 비판과 울분, 저항과 지조의 총칼을 한시문에 담아내었다. <원유일록> 수록 234수의 한시는 우리나라 곳곳에서 활개 치는 일본인들과 일본 군사들의 만행을 규탄하고, 점차 변모되어가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모습을 탄식하는 작품이 적지 않았음은 위에서 살펴본 바다.

<원유일록> 6월 22일에는 경희 일행이 포천에 있는 중암 김평묵의 집 수운담(水雲潭)에 머무른 기록이 있다. 경희는 중암의 손자 김춘선을 15년 만에 만나 시대를 논변하였는데, 그 논변 가운데 두 사람이 시대를 대처하는 모습이 보인다.

○ 6월 22일. 청하다. 저녁에 수운담(水雲潭)에 이르러 선사 중암선생의 댁으로 들어갔다. 선생의 사손 유안재 인중(仁仲) 춘선(春善)과 십오 년 만에 악수를 하고 옛 정을 나누니 아주 반가웠다. 인중이 말하기를, “을미년 뒤로 서울의 친구들이 연하여 태학교수나 궁내부 주사 관직을 하라고 했지만 간곡히 사절하여 면했고,

81) 『경희집』, <舌耕>, “新學主張舊學殊, 舌耕身世轉艱難.”

82) “금전이 일세의 영웅이 되고(但取金錢爲第一)·금전만 아는 시절이라 어긋난 일 많다(金錢時節事多違)·금전의 세태가 이와 같다(金錢世態應如此)·금전만 아는 시절에 어찌하면 좋은가?(金錢時節可如何)·금전에만 마음을 두지 말라(莫把金錢用意長)” 등이다.

또 창의한 제공들이 초청을 했지만 재식이 미치지 못해 나가지를 못했다.”고 했다. 나는 말하기를, “근세 명현의 자손들을 보면 거개가 재리를 따르고 녹을 구하여 조상을 욕되게 하고 있는데, 공은 홀로 초지를 지키고 깊은 산골에서 곤궁함을 견디고 사니, 참으로 선사의 초손(肖孫)입니다.”라고 말했다.⁸³⁾

경희는 대학교수나 궁내부 주사 등의 벼슬자리를 물리치고 할아버지 중암의 유택에서 곤궁한 삶을 살고 있는 김춘선에 대하여, “명현의 자손들은 재리를 따르고 녹을 구하여(循利苟祿) 조상을 욕되게 하지만, 그대는 홀로 본래의 뜻을 지키니(保守初服) 스승님을 닮은 참 손자”라고 평가하였다. 중암을 사이에 두고 할아버지를 닮은 ‘참 손자’ 김춘선과, 스승을 닮은 ‘참 제자’ 김영근의 모습이 둘이 아니다. 두 사람은 시대의 잇속에 대응하지 못하고 명분과 의리, 지조를 지켜내는 한사(寒士)의 모습이였다.

『경회집』 소재 1,527수의 시 가운데에는 〈영동사오절(咏東史五絶)〉에서 우리나라를 위기에서 구해낸 김유신·을지문덕·양만춘·강감찬·이순신 등을 시로 읊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조수초목을 읊은 영물시(詠物詩)는 100여 편을 헤아리고, 그 대상도 섬세하고 다양하다.⁸⁴⁾ 경희의 우국단충(憂國丹忠)의 저항정신이 자연스레 우리나라의 역사와 인물, 산천초목에 대한 관심으로 승화된 것으로 보인다. 기타 서발(序跋)·기(記)·제문(祭文)·서독(書牘)·고유문(告由文)·축문(祝文)·묘문(墓文)·상량문(上樑文)·찬명(讚銘)·행장(行狀) 등 다양한 한문학 장르를 구사하며 당대의 인물과 역사를 기록하였다. 경희는 근대화 서구화

83) 『경회집』, 〈원유일록〉, 〇6월 22일, “暮至水雲潭, 入先師重菴先生宅, 與先生嗣孫遺齋齋仁仲春善, 相握於十五年之後, 道故驩甚. 仁仲爲道, 乙未年後, 洛中朋儕, 連以太學教授, 宮內府主事等擬職, 而懇辭得免, 又被倡義諸公所邀, 而以才識不逮, 亦不得就.” 余曰, 歷觀近世名賢子孫, 類多循利苟祿, 忝辱祖先, 而公獨能保守初服, 固窮深峽, 眞先師之肖孫也.”

84) 조수충(鳥獸虫)을 읊은 시는 파리·얼어붙은 파리·모기·벼룩·이·거미·귀뚜라미·매미·호랑이·소·개구리·학철어·개·쥐·매·딱따구리·솔개·백로·제비·까치·피꼬리·까마귀·뼈꾸기·뱀새·지렁이·왕벌·반딧불·고양이, 화초목(花草木)은 달래·매화·목매·반송·소나무·대나무·치자·버드나무·도리·웅중수·행화·표주박·파초·접시꽃, 물품은 부채·등·화병·칼·채찍·웅기·철폐(箭)·서안·괘·도척(刀尺)·궁시(弓矢)·갑주(甲冑)·병, 식품은 밤·굴·석류·대추·수박·상추·배·감·산포도 등이다.

와 충돌하며 명멸되어가는 한문학을 올곧게 지켜낸 지조의 한문학 세대로 평가할 수 있다.

둘째, 호남문학 전통을 계승하였다. 호남은 조선중기 문학평론가 이수광, 허균 등에 의해 이미 ‘호남시단’ 또는 ‘호남풍’의 문예사조를 구축한 문향으로 평가받았던 곳이다. 경희의 문학적 자산 또한 호남시단의 오랜 토양아래 형성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원유일록> 7월 2일에는 강원도 회양에서 함경도 안변으로 가는 여정에 철령(鐵嶺) 고개를 넘으면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 7월 2일. 청하다. 철령(鐵嶺)에 올랐더니 고개위에 신묘(神廟)가 있되 무너졌고, 또 일찍이 북백을 지냈던 사람의 은회비가 있는데 덩불속에 매몰되어 있다. 대개 형은 북백 아우는 관동의 수령이 되어 고개 위에서 서로 만나 기적을 한 것이다. 고개에서 내려가니 절벽이 만 길이나 되어 심신이 오싹해진다. 길이 아주 높고 험준하여 거의 발을 붙일 수가 없는데, 바라보매 안변의 여러 산들이 청수하고 명랑하여 운무의 사이에 아른거렸다. 큰 들이 평평하고 넓어 끝이 안 보인다. 강물과 원야가 백 리 밖을 감돌고 있는 모습이 사람으로 하여금 표현히 구름 위로 솟아오른 기분이 나게 한다.

대저 이 고개가 강원도와 함경도 두 도의 경계에 끼어 있기 때문에 행인들이 이어지고 끊이지 않는데, 험준하기로 국내에서 유명한 곳이다. 후포가 유미암(柳眉菴)이 북청으로 귀양을 갔을 적에 그 부인이 고개를 넘으며 읊었던 시를 외우므로, 나도 이백(李李白沙)의 <철령가>를 외우며 탄식을 한참 했다.⁸⁵⁾

철령은 강원도 회양과 함경도 안변군 사이에 있는 험준한 고개이다.⁸⁶⁾ 예로부터 오르막길 40 리, 내리막길 40 리나 되는 아흔아홉 굽이의 고개로 유명하

85) 『경희집』, <원유일록>, ○7월 2일, “鐵嶺嶺上有神廟圯壞。又有曾經北伯恩會碑，埋沒於草萊之間，蓋兄爲北伯弟宰關東，相會於嶺上而記蹟者也…(중략)…後圃，爲誦柳眉巖謫北青時，其夫人踰嶺詩。余亦誦李白鐵嶺歌，爲之嘆咤者久之。

86) 철령의 높이는 677m이다. 고개의 북쪽을 관북지방, 동쪽을 관동지방이라고 한다. 북동쪽에는 연대봉(1,090m), 남서쪽에는 풍류산(1,058m)이 솟아 있다. 일제강점기에 지정된 국도 제31호선이 통과하였다. 지형상 천연요새이고, 서울에서 함경도 지방으로 가는 주요 교통로이다.

다. 경회일행 다섯 사람은 이 험준한 고개를 넘으며 명종 때 정미사화로 함경도 종성으로 유배 간 해남출신 관료 미암 유희춘(1513~1577)과 미암의 부인 덕봉 송종개(1521~1578)의 일화와 시를 화제 삼았다. 송종개는 남편 유희춘의 유배지 종성을 찾아가다가 마천령(摩天嶺) 고개를 넘으며 <마천령상음> 시를 읊었다. 이 시는 역대 시화서에서 '성정의 바름을 얻었다'는 극찬을 받으며, 사대부가 여성시의 전범으로 평가되었다.⁸⁷⁾ 경회 일행은 철령을 넘으며, 부인의 몸으로 북녘의 험준한 고개 마천령을 넘었던 송종개의 기상에 찬탄하며 <마천령상음> 시를 암송하였다. 송덕봉은 담양에 살며 최북단 종성 원유를 감행하였는데, 미암부부는 호남문단의 선두에 있는 인물이다.

한편 『경회집』에 수록된 한시는 조선조 호남문인이 지은 시에 차운한 시가 적지 않다. 특히 100여 편이 넘는 영물시(詠物詩)는 장흥의 문인 천방 유희인(劉好仁)⁸⁸⁾의 시에 차운한 시로, 『경회집』에는 유희인의 원시와 경회의 차운시가 모두 수록되어 있다. 유희인은 경회 보다 300여 년 앞선 시기의 장흥사람으로 학계에 널리 알려져 있지는 않다. 이 외에 제봉(霽峰) 고경명(高敬命), 계향(桂巷) 위백규(魏伯珪), 청사(晴沙) 노명선(盧明善) 등의 한시에 차운하거나 국문시가 <자회가(自悔歌)>(위백규), <천관가(天冠歌)>(노명선) 등의 독후 감상을 시로 썼다.

이밖에도 장흥·해남·강진·영암 일대 인물들과의 관계망을 중심으로, 이 지역의 재(齋)·당(堂)·정(亭)·정사(精舍)의 상량문과 기문을 짓거나 차운하였다. 경회의 이러한 문화행위와 창작 작품들은 호남 정자문화 전통의 마지막 계보를 이은 업적이 되었다.

87) 마천령은 함경남도 북동쪽 단천시와 함경북도 김책시 사이의 경계에 있는 고개(709m)이다. 고개의 마루에서 손을 뻗으면 하늘에 닿을듯하여 마천령이라고 한다. 송종개의 <마천령상음> 시는 문희순의 연구가 있다. (문희순, 「16세기 여성지식인 德峯 宋鍾介 문학의 특징과 의의」, 『역사학연구』 44, 호남사학회, 2011. 176~177쪽)

88) 유희인(劉好仁, 1502~1584). 본관은 강릉, 자는 극기(克己), 호는 천방(天放) 또는 산당(山堂)이다. 경서와 사기에 통달하고 문장이 뛰어났다. 율곡 이이의 문인이고, 옥봉 백광훈과 교류하였다. 『천방유선생일고(天放劉先生逸稿)』 발문을 존재 위백규가 썼다. 장흥군 장흥읍 예양리 소재 예양서원에 배향되었다.

셋째, 남과 북 언어와 가요에 대한 인식이다. 경희 일행은 북녘으로 올라갈수록 남쪽 말과 확연히 다른 북쪽 말을 인식하였다. <원유일록> 7월 27일 기록에 의하면, 경희 일행은 함경도 북청에서 양강도 갑산으로 북진하는 도중 속신동(東薪洞) 고개를 넘어가고 있었다. 갑산은 동쪽은 단천군, 서쪽은 삼수군, 남쪽은 풍산군, 북쪽은 혜산군과 접하고 있다. 갑산은 우리나라의 산 중 높은 산, 높은 봉우리, 높은 고개가 제일 많은 곳이다.

○ 7월 27일. 청하다. 호동장까지 20리를 가서 가장떡을 사먹어 요기를 했다. 행장속의 홀저고리 한 벌을 꺼내 홰옷 위에다 끼입었으니 추위를 견딜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속신동 고개를 넘으면서 입으로 시를 읊기를, “가고 가며 높은 고개를 많이 경과하니, 고갯길만 닳치면 이마가 찌푸려진다. 고향을 생각함은 남자의 일이 아니니 고개 위에서 지팡이 짚고 한 번 길게 노래한다.”했다. 고개에서 나무꾼의 노래 소리를 듣고 희롱삼아 절구 일 수를 지었다.⁸⁹⁾

北歌緩緩北言忙	북녘의 노래는 늘어지고 말은 바쁘니
緩緩忙忙兩不當	늘어지고 바쁜 것이 서로 맞지 않네.
大抵歌謠寧取緩	대저 노래는 차라리 느낌을 취하리니
勝如南曲亞龔場	남녘의 아리랑 가락보다 듣기 좋구나.

〈嶺間樵歌戲成一絕〉

갑산 깊은 산골짜기 고개에서 듣게 된 북녘 나무꾼의 노래 초가(樵歌). 밀어 닦친 추위 속에 가도 가도 끝없이 계속되는 고개를 넘느라 지칠 대로 지친상황에 뜻밖에 듣게 된 북녘의 민요는 청량제가 되기에 충분하였을 것이다. 국문시 가에도 관심이 많았던 경희는 그 광경을 목도하고 위의 시 한 수를 썼다. 북쪽의 빠른 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느린 노래 가락을 주목하였다. 민요는 노동의 강도에 맞물려 사설과 가락이 입혀지는 만큼, 갑산 험준한 산골짜기에서 나무

89) 『경희집』, <원유일록>, ○7월 27일, “胡洞場二十里, 買食黍餅. 以療饑出行箱單襦袴一具, 加襲於貼身單衣之上, 爲寒不能堪故也. 踰東薪洞, 吟曰. ‘行行峻嶺飽經過, 嶺路當前蹙頰多. 懷土知非男子事, 嶺頭倚杖一長歌.’ 嶺間樵歌, 戲成一絕曰.”

를 하며 부르는 나무꾼들의 노래는 더욱 유장한 가락으로 이루어졌을 것이다. 경희는 북녘의 나무꾼이 부르는 민요 초가(樵歌)와 남도의 아리랑(啞而嚶歌)을 비교하며 “남녘에 아리랑 노래가 있는데, 슬프고 빠르다.”고 평가하였다.⁹⁰⁾ 남녘의 아리랑이라면 강진 옆 진도 일대에서 불렀던 진도아리랑일 것이다. 경희는 남쪽 아리랑과 북쪽 나무꾼노래를 비교하며 “노래는 느낌을 취하는 법이니, 북쪽 초가의 곡조가 남쪽의 아리랑보다 낫다.”고 평가하였다.

경희는 위에서 〈자화가〉와 〈천관가〉를 읽고 난 뒤의 감상을 한시로 썼던 것처럼, 시조나 가사작품을 즐겨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경희집』에는 시조를 베끼고 그 내용을 한역하여 기록한 것도 있다. 앞서 영흥(永興)에서 벌여졌던 일화에서, 경희를 처음 본 사람조차도 경희를 문학유자(文學儒者)로 평가하였던 것처럼, 경희의 문학적 서정은 다양한 문학영역에 펼쳐져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4. 맺으며

본고는 경희가 창작한 방대한 분량의 한시 작품 가운데 〈원유일록〉 소재 234수의 한시작품을 중심으로 살펴본 것이다. 간도 원유는 경희 나이 42~43세, 70세 생애 가운데 가장 왕성한 시기에 이루어진 것이다. 일제강점의 소용돌이와 서세동점의 충격 속에서, 새로운 삶의 대안을 모색하고자 원유를 감행하였다. 〈원유일록〉 속에는 일본의 을미년(1895) 명성황후 시해와 단발령, 을사년(1905) 을사늑약 체결, 병오년(1906) 통감부 설치와 이등박문의 취임 등 본격적 조선침탈의 만행과, 혼돈의 한국의 모습이 들어있다. 원유의 길에서 만난 망국 백성의 일부는 시속에 부응하며 변질된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는데, 경희는 그러한 세태와 사람들을 바라보며 참담함을 느꼈다. 그리고 그러한 여정

90) 〈嶺南樵歌戲成一絕〉 절구 아래에 “南中有啞而嚶歌，聲甚悲促.”이라고 주석을 붙였다.

하루하루의 느낌과 서정적 회한을 짙진하게 서술하였다.

경희는 고향 강진에서 출발하여 국토를 종단하여 압록강 건너 간도 요녕성 요양까지 원유하면서, 주인 잃은 산하와 그 곳에 깃들어 살고 있는 망국민의 애환을 목도하였다. 경희는 “살아서는 요동의 객이 되고, 죽어서는 요동의 귀신이 되는 것(生爲遼東客, 死作遼東鬼)”이라 말할 정도로 우리의 역사가 서려 있는 간도 요동별판을 가슴에 품었다. 그러나 여러 가지 환경요인에 의해 그 꿈은 좌절되었고, 전통방식의 강학과 교육, 저항시를 창작하여 일제에 항거하는 방식을 선택하였다.

〈원유일록〉 소재 한시는 크게 ‘힘난한 원유 여정과 고난·일제의 만행과 울분 토로·위척존양의 의리·그리움과 애련의 가족애·궁핍과 부유의 신세한탄’으로 주제가 분류되었다. 그리고 〈원유일록〉의 문학사적 의의는, 일제 강점기 지조의 한문학·호남문학 전통의 계승·남과 북 언어와 가요에 대한 인식으로 평가하였다. 한시 작품에 흐르는 주된 정서는 통한·비애·분노·저항·좌절·고독 등의 정조로 나타났다.

경희는 조선시대 사람으로 태어나 대한제국과 일제침략하의 한국인으로 살아가며, 조선성리학과 학문 정신을 올곧게 실천하다 간 유학자요 문학인이다. 이제 경희의 삶과 문학 연구는 시발점에 놓여있다. 앞으로 방대한 분량의 『경희집』을 중심으로 다양한 방식의 연구가 이루어질 때, 근대문학 이행기의 한문학자 김영근의 위상은 크게 자리매김 되리라 생각된다.

참고문헌

1. 자료

- 『경희선생시선집』(번역본)
한국학문헌연구소 편, 『경희집』, 아세아문화사, 2013.
이백순·최한선 역, 『국역 경희집』, 강진군, 2010.
『김해김씨송정파세보』, 김성균, 2005.
<대동여지도>(김정호, 규장각소장본)
<조선지도>(1916년 축도, 1938년 수정축도, 조선총독부 발행, 충남대소장본)
『한천정사강록(寒泉精舍講錄)』(필사본)

2. 논저

- 문희순, 「16세기 여성지식인 德峯 宋鍾介 문학의 특징과 의의」, 『역사학연구』 44, 호남사학회, 2011. 165~198쪽.
박민영, 「호남유생 景晦 金永根의 생애와 북간도 항일 망명」, 『한국독립운동사 연구』 49,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14.
영암문화원, 『영암잠빛』, 2016.
조동일, 『한국문학통사4』, 지식산업사, 2007.
최신희, 「景晦의 詩世界 一 斥邪衛正의 側面에서」, 『성심어문논집』 7, 성심어문학회, 1983.
황민선, 「景晦 金永根 한시의 전원인식」, 『한민족어문학』 72, 한민족어문학회, 2016.

3. 인터넷 사이트

- 구글 지도(<https://www.google.co.kr/maps>)
국가지식포털 북한지역정보넷(<http://www.cybernk.net>)
디지털포천문화대전(<http://pocheon.grandculture.net>)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고지도(<http://kyujanggak.snu.ac.kr>)
한국고전번역원(<http://www.itkc.or.kr>)
화서학회(<http://cafe.daum.net/hwaseo~society>)

| Abstract |

**A study on the Chinese poem of Gyeonghoe(景晦)
Kim Yeong-geun(金永根)**

— From the Gangjin to the Gando, focusing
on <Wonyuillok> —

Moon, Hee-soon

Gyeonghoe Kim Yeong-geun (1865~1934) is a national patriot and a literary scholar of Honam area who lived during the modern turbulence. Gyeonghoe was born as a person of Joseon Dynasty, living as a Korean under Korean empire and Japanese invasion, practicing the spirit of scholarship and Neo-Confucianism of Joseon Dynasty. He lived a life of destitution and affluence, living as people of a helpless country, 1 being a village school teacher of teaching Confucian scholarship, which is becoming a scholarship without choosing anger, resistance, and the way into the government service.

Kim Yeong-geun had buried the god of the Gando of our history in the heart, saying, "To be a lively guest of life and to become a lion's demon of death." <Wonyuillok> is an article written in the form of a daily record of the long journey of the journey to Gando when such desire is put into practice. Gando Wonyu was made during the most powerful period of Gyeonghoe of the 70 years of age, 42~43 years of age. In the shock of the Japanese strength and the impact of the westward tide, Wonyu was launched to find a new alternative to life. <Wonyuillok> is a daily record and Chinese poetry describing the penance of 5 people recuperating in Gangjin and going north to Seogando, and is a work that describes the rapidly changing modernity of Korea under Japanese imperialism.

This article focuses on the works of Chinese poem of the 234 volumes of the <Wonyuillok>. The Chinese poems in the <Wonyuillok> are largely classified. ① The rough journey and hardship of Wonyu; ② The atrocity of the Japanese imperialism and giving vent to one's anger; ③ The loyal of Wicheokjonyang; ④ The family love of nostalgia and pity; ⑤ Lamentation

of poverty and wealth, and ⑥ Sigh of social conditions of shift. And the significance of literary history in the <Wonyuillok> is evaluated as Chinese literature of constancy under Japanese colonial era firstly, succession of Honam literature tradition secondly, and recognition of South and North Korean language and song thirdly. The main emotions of Chinese poem expressed in Kim Yeong-geun's <Wonyuillok> are composed of grief, sorrow, anger, resistance, frustration, and solitude.

Kim Yeong-geun is a person who has received rave reviews that “Dong-pa was born again” since he was a boy. It is regarded as the last generation that has kept the Chinese literature that has been blinking with its place in the modern sciences.

Key words : Kim Yeong-geun, Wonyuillok, Gangjin, Gando, literary scholar